

‘ 深 바다 ’ - 2017 상하이국제교류전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열려

보름달이 뜨는 날, ‘ 深 바다 ’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深 바다

深海, 2017上海国际交流展

2017. 02. 11 ~ 02. 25

策展 李惠庆 · 评论 陈建华

参展艺术家

赵寅浩 | 赵美蕊 | 龚世俊 | 黄伟明 | 金志泳 | 李惠庆 | 李承禧
李素英 | 李守连 | 卢象太 | 钱培琛 | 沈天万 | 刘相善 | 滕海瑛
王富强 | 徐茂平 | 徐思基 | 张伟宗 | 张祖铭 | 周 南 | 朱保平

主办 · 支持

驻上海韩国文化院 Korean Cultural Center Shanghai

‘ 深 바다 ’ - 2017 상하이국제교류전이 지난 2월 11일,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전시홀에서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한석희 총영사, 상하이수채화협회 진배영 예술고문, 푸둥예술센터毕震钧 부소장, 상하이시공예미술디자인 협회 탕조기 회장 등 많은 중국 예술계 원로와 박물관, 미술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성대한 막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8명의 한국작가와 13명의 중국작가 총 21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작가 각각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유화 · 산수화 · 프린팅 등 다양한 작품 50여점이 전시되었다.



한석희 주상하이대한민국 총영사는 환영사를 통하여 어느 한 특정 세대의 작품과 장르를 보여주는 전시들과 달리 다양성과 다양한 세대의 한중 예술가들의 융화를 통해, 예술적 학술적 교류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한국 예술가들이 중국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 · 중 간 현대미술의 교류가 한 층 더 깊고 성숙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노상태 작가는 한중 작가들을 대표하여, 상하이에서 한국을 알리고 있는 문화원에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며, 문화원이 앞으로도 다양한 한중작가들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의 기획을 맡았던 한국의 이해경작가는 육지 위에서는 강과 바다로 모두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바다 밑에서 보면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전시의 작가들은 나라도, 연령도, 재료도 특징도 모두 다르지만 추구 하는 예술의 본질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대며, 이 전시를 통해 예술의 본질에 바탕을 둔 21명의 작가들이 어우러져 교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국어의 深과 한국어인 바다를 합성하여 이번 전시 제목을 정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더 자주 이런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첫 전시의 개막식이 진행되던 2월 11일은 일년 중 첫 번째 보름달이 떠오르는 정월 대보름이었다. 새로운 한해,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는 둥근 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듯 2017년에도 다양한 전시를 통해 많은 한중 작가들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길, 그 빛으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한지향(韩纸香)’—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제1기 한중문화교류기자단 발대식 개최



지난 2월 25일(토), ‘한지향(韩纸香)’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제1기 한중문화교류기자단 (이하 한지향 기자단) 발대식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박종석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김진곤 주상하이한국문화원장, 정용문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장, 이아름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오명 <상하이저널> 대표 등 한국 측 귀빈을 비롯, 조소루(赵小鲁) 상해중외문화예술교류협회 부회장, 장유훈(张薰薰) K-Media 대표, 봉교(冯乔) SMG다큐채널 수석편집장, 공동(孔同) <해방일보(解放日报)> 기자, 은월평(殷月萍) SMG동방FM뉴스채널 부편집장, 정녕(丁宁) <중국여행보(中国旅游报)> 편집장 등 많은 각계 인사와 언론인들이 발대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종석 부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2007년 설립 이래 공연·전시·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제는 물론 각종 체험·견학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중국인들이 한국과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한중 양국민 사이의 우의를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문화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앞으로는 기자의 시각으로 문화원 행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참가자 입장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문화전파에 힘써 달라” 며 기자단에 대한 소망을 전달했다.



행사 당일 한지향 기자단 사업 담당자인 장지균 문화원 홍보과장은 기자단의 결성목적, 주요업무, 구성원, 내부 업무분장 및 동명의 문화원 간행물 ‘한지향’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 박종석 부총영사, 김진곤 원장, 정용문 지사장은 기자단 멤버 한 명 한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기자단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척효군(戚晓君)은 “한지향 기자단 멤버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중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 이라며, “한지향 기자단의 펜을 통해 한중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길 소망한다” 고 말했다.



이번 한지향 기자단은 14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백여 명의 지원자 중 서류, 면접, 실기 등 3차례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다. 기자단은 취재, 번역, 디자인의 세 팀으로 나뉘며 취재팀은 문화원내·외부 행사의 현장 취재, 문화원 SNS 운영지원, 문화원 웹진 및 간행물의 편집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번역팀은 문화정책 번역, 문화원 홍보 관련 통·번역을 맡아 언어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한국’ 과 ‘한국문화’ 를 중국인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디자인 팀은 문화원 내·외부 행사의 홍보 관련 디자인 작업을 담당한다.

한지향 기자단은 올 2월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의 소기자로서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중국인에게 올바른 한국문화를 소개한다. 향후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이번 한지향 기자단 발대식과 더불어, 한중문화의 보다 깊은 민간교류와 양국민 간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3

알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월 입장권 온라인 예매개시

- **판 매 처** :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NOC) 지정 티켓판매업자 (온라인)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 (<http://tickets.pyeongchang2018.com>) 통해 확인 가능
- **판매일정** : 국가별 상이
- **판매구분** : 구매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국내 / 해외 판매가 구분됨
※ 해외거주 한국교민의 경우, 거주 국가에서 입장권 구매 가능



주상하이한국문화원
驻上海韩国文化院
KOREAN CULTURAL CENTER, SHANGHAI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한·중 문화 교류를 통해 한·중 양국을 잇는 역할을 하는 곳, 한·중 양국민이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곳,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다채로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언제든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화원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주소: 徐汇区漕溪北路396号汇智大厦裙楼2 ,3F

대표전화: 021-5108-3533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 9, 11호선 徐家汇역 1번 출구; 1, 4호선 上海体育馆역 8번 출구